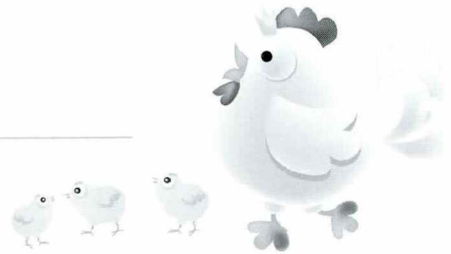


축산시황

양계소식

양계업계 HPAI '경계령'



양계업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경계령이 내려졌다.

대한양계협회는 최근 협회를 AI 비상대책본부 감시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에 따라 대외협력팀, 수급조절팀, 소비대책팀으로 나뉘고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을 막고 만의 하나 발생시 질병의 조기차단과 이로 인한 소비위축 등 공황상태에 대응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계육협회도 지난달 12일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 발생할 경우 뿐 아니라 해외 악성사례 보도로 인한 소비위축 등 일련의 사태에 사전 대처하기 위해 'AI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바 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와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홍보팀장은 "방역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농가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협회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와 업계와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장두향 기자 el1124@afnews.co.kr [최종편집 : 2006/10/11]

양돈소식



2006 전국 순회 양돈세미나 '양돈발전세미나' 성황 농협, 예상인원 초과 690명 참석

농협 축산지원부가 전국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돈산업발전 세미나'가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관계자들이 크게 고무돼 있다.

농협은 8월29일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까지 권역별로 세미나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세미나에는 양돈농가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소모성 질병과 가축분뇨처리, 축산물유통시장 동향과 돼지수급 전망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돼 당초 계획인원보다 많은 690여 명이

참석,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농가는 “현장의 농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이 같은 세미나를 정기적인 행사로 꾸준히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내년에는 양돈농가들의 성공사례를 추가하는 등 더욱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류호천 기자 fortune@nongmin.com [최종편집 : 2006/09/25]

한우소식



한·육우 200만마리 넘었다 가임암소 수 급증 ... 쇠고기 공급과잉 우려

가축통계 조사결과 통계표



한·육우 사육마릿수가 200만 마리를 넘어섰다.

농림부는 2006년 9월1일을 기준으로 한·육우 사육마릿수를 조사한 결과 202만 1,000마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지난 1997년 6월 293만 마리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1999년 말엔 200만 마리 선이 무너져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 이후 산지 소값이 강세를 보이자 농가 입식이 늘어 7년 만에 200만 마리를 회복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육우 사육마릿수가 200만 마리를 돌파한

것에 대해 한우 사육기반이 안정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으로 향후 쇠고기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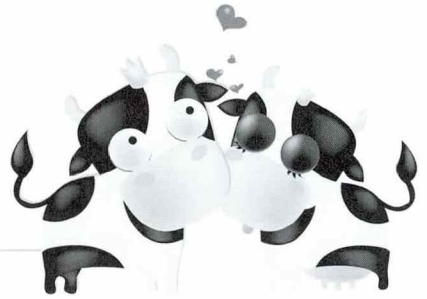
특히 송아지 생산이 가능한 한·육우 가임 암소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 사육마릿수 증가 → 쇠고기 공급량 증가 → 산지 소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 9월 현재 한·육우 전체 사육마릿수는 1년 전에 비해 10.7% 증가했으나 가임 암소 수는 12.2%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농가들이 송아지를 생산하거나 입식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소를 입식하더라도 관행 사육방식을 탈피, 품질 고급화에 대한 자구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종진 농협 축산지원부 한우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것은 쇠고기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번식농가들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밀소 생산에 나서고 비육농가들은 품질 고급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김광동 기자 kimgd@nongmin.com [최종편집 : 2006/10/11]

낙농소식



낙농미래 2세기 주도한다 ... 2006 한국홀스타인 품평회



▶ 2006 한국홀스타인품평회 그랜드 챔피언 수상영예를 안은 경기 파주 이용기씨(가운데)가 챔피언 소와 함께 웃고 있다. 이씨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 조병대 한국종축개량협회장.

홀스타인 품평회 참여농가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과 19일 한국종축개량협회 주최로 농협 안성연수원에서 열린 2006 한국홀스타인 품평회에는 2세 낙농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번 대회 심사위원이자 지난해 5년마다 개최되는 전일본 대회 심사위원이었던 다카하시 쿠니히로 일본 홀스타인 등록협회 기획부장은 "젊은 낙농가들의 참여가 상당히 눈에 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출품 농가는 "2세대 낙농가들이 도시취업보다 목장 경영전선에 참가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이 같은 경향이 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회 내용도 이들 젊은 농가를 겨냥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전시업체 관계자는 "참여 농가도 젊어졌고 출품축 참여 부스도 지난해 보다 늘었으나 관람객은 오히려 줄었다"며 "젊어지는 연령층을 고려해 대회 참여를 독려키 위한 이벤트 마련과 내실있는 세미나 개최 등 변화가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대회의 그랜드 챔피언은 경기 파주 이용기씨의 앞동산 디사이퍼 236호가 차지했다.

이용기 앞동산 목장 대표는 "매년 4, 5위만 하다 1위에 입상해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장두향 기자 eh1124@afnews.co.kr [최종편집 : 2006/10/23]

양봉소식



양봉인의 날 기념 '벌꿀축제' 성료

한국양봉협회(회장 전기현)는 지난 20일 대전시 서구 만년동 갑천공원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국회의원, 김달중 농림부 차관보를 비롯한 내외귀빈과 전국의 양봉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양봉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전기현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양봉업계는 항생제 검출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행사가 과거의 관행을 버리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봉농가들은 지역별로 지구공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벌꿀시식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화합과 우

의를 다졌다. 한편,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벌꿀생산에 앞장서 양봉산업 발전에 주력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최종편집 : 2006/10/23]

양육소식



양육協, 2006 양육인 교육 개최

한국양육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인 교육계획에 따라 10월 16~17일 이틀간 충남 아산 소재 한국증권연수원에서 '2006년 양육인 국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양육업계의 각 전문가들이 고품질 녹용 생산, 농가 경영의 합리화 방안 등 농가들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주제를 발표하였고 총 250여 명의 양육인들이 참석하여 이틀간의 교육일정을 마친 후 수료증을 발부받았다.

농업인신문 [최종편집 : 2006/09/29]

